

Talk, Learn, and Grow Together

서울개명초등학교 교사 장지영

영어교과 전담, 최신식 어학실, 그리고 파란 눈의 원어민 교사.

2008년 초 나에게 전달된 부담스러웠던 이 세 가지 임무는 약 2년이 지난 지금,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소중한 학교생활이 되었다. 무엇이 그간의 나를 변화시켰을까. 본 사례 글은 영어를 잘 가르치고자 노력했던 고민의 흔적이며, 그간 원어민 교사와 필자가 함께 더 나은 교사로 발돋움하고자 했던 성장에세이이다.

본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원어민 교사를 처음 만나서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한국교실에서의 영어수업에 대한 감을 잡도록 도와주는 ‘대화’의 단계가 그 첫 번째 이다. 두 번째 부분은 ‘원어민교사 200% 활용하기’로서 기본편(정규 수업 내)과 응용편(수업 외 교육활동)으로 구분하여,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여 이루어낼 수 있었던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집중적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기’라는 부분에서는 다수의 원어민협력수업 공개를 통하여 필자와 원어민 교사의 변화된 모습과 앞으로의 교육활동 방향을 기술하였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만, 사공이 마음을 모으면 더 넓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볼 수 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지난 2년간의 발자취를 지금부터 차근히 풀어보려 한다.

1. Talk, talk, and talk more! -대화하고, 대화하고, 또 대화하기

1) 준비작업

작년 초, 처음으로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은 분주해졌다. 원어민 교사의 성격은 어떤지, 영어수업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가운데 협력수업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했다. 우선 EBS 영어교육채널 활용 직무연수를 들으면서 협력수업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수업에서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두 교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수업해야 하는 협력수업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림자 교수, 교수-지원형태, 스테이션 교수 그리고 보완적 교수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종류 가운데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형태인 동시에 국가사업으로 원어민 협력교사를 기용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가 선택한 수업 형태는 한국인 교사가 수업을 리드하는 ‘보완적 교수-지원 형태’였다. 이는 한국인 교사가 전반적인 교수 활동을 이끌어나가되, 원어민 교사의 강점을 활용하여 언어기술적인 부분과 자연스러운 문화에 노출이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수업을 보완해주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수업에 대한 전문가인 한국인 교사와 영어라는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원어민교사가 함께 수업하기에는 적합한 형태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격적인 만남에 앞서서 원어민교사와 이를 협의하기 위한 수업흐름도(자료1)를 작성하였다.

2) 만남과 관계 형성

본교로 발령이 난 원어민 교사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 미국인이었다. 미국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갓 대학을 졸업하여 처음 외국에서 생활을 시작한 그는 영어수업에 대해서는 관련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다행히 밝은 성격으로 수업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었고, 그렇게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수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가장 신중을 기했던 점은 내가 원어민교사의 통역사가 되거나, 원어민 교사가 단순히 테이프리코더가 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파란 눈과 금발의 원어민교사의 출현을 신기하게 여겼지만, 그의 빠른 말과 끊어질 줄 모르는 긴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학생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알아챈 원어민교사 역시 나에게 통역을 부탁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3) 대화를 통한 규칙세우기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강점을 잘 조합한 환상적인 수업을 기대했던 나와, 한국에서의 영어수업이 점점 어렵고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원어민교사의 갈등이 조금씩 나타나는 듯하였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는 끊임없는 대화였다. 서로를 잘 알고, 서로 기대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매끄러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다시 함께 책상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함께 영어수업을 하면서 꼭 지켰으면 하는 몇 가지 규칙을 세우게 되었다.

우선 5, 6학년을 함께 가르치는 동안 수업지도안을 매 단원, 매 차시 작성하기로 하였다.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동시에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도안을 자주, 많이 작성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특히 영어교육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원어민 교사에게는 꼭 필요

한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원어민교사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첫 두 단원의 지도안은 내가 작성하여 수업의 흐름을 설명해주었고, 4월부터는 1,2차시의 지도안은 내가, 3,4차시의 지도안은 원어민 교사가 우선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협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규칙은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으며 현재 두 개의 두꺼운 지도안 및 수업자료 파일이 만들어졌다. 원어민교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지도안 작성(지도안 템플릿-자료2)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수업에 대한 눈을 더 넓혀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규칙은 수업 중에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학생들을 함께 돌보는 것이었다. 사실 원어민이 아닌 다른 한국인 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일도 싫지 않을 터인데,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원어민과 함께 원하는 수업을 만들어 나가기란 참 힘든 일일 수 있다. 또한 언어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이게 되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수업을 듣는 학생들 역시 불편한 기분으로 수업을 듣게 된다. 따라서 수업 전에 서로가 리드할 활동에 대하여 정확하게 협의하였고, 한 사람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은 다른 사람은 반드시 교실을 순회하며, 수업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돌보아 주기로 하였다. 아주 기본적인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부분들까지 대화를 통하여 규칙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욱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협력수업이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협력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은 오해는 쌓이기 전에 바로 대화로 풀어야 하며, 진실하고 지속적인 대화는 서로가 가진 언어적 장벽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제 수업시간 내외로 원어민교사를 활용하여 이루어냈던 여러 가지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2. 원어민교사 200% 활용하기

◆ 기본편	정규수업 내 교육활동	☞ 신선하고 효과적인 수업하기 가. 소규모 수준별 분리수업 나. 12개 단원 어휘학습지 제작 다. 협력수업에서의 역할분담
◆ 응용편	수업 외 창의적 교육활동	☞ 특색있는 원어민활용 교육활동 가. 외국문화체험행사(할로윈파티) 나. 아침영어방송의 식단소개 및 퀴즈 다. 영어동화책 읽어주는 시간

1) 기본편 - 신선하고 효과적인 수업하기

각 단원 4차시 수업의 흐름도		
수업 전 준비	☞	교과서 분석 및 수업계획 협의 해당 단원 주제 어휘와 표현정리-어휘학습지 제작
↓		
1차시 수업(소규모분리수업)	☞	수준별 소규모 수업, 어휘학습지를 통해 목표어휘와 표현 학습
↓		
2차시 수업(전체 협력수업)	☞	두 교사의 모델대화문을 듣고, 읽기와 말하기 연습
↓		
3차시 수업(소규모분리수업)	☞	수준별 소규모 수업을 통해 보다 많은 발화의 기회를 가짐
↓		
4차시 수업(전체 협력수업)	☞	한 단원에서 배운 내용 체화, 게임 활동

가. 소규모 수준별 분리수업

원어민 교사를 영어수업에 활용하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두 명의 교사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세심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규모 수준별 분리수업’이라는 형태를 도입하여 영어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계획하였다.

소규모 수준별 분리수업은 일주일에 1시간씩 5, 6학년 각 반 학생들을 상중/중하 레벨로 나누어서 2개의 교실에서 따로 수업을 하는 형태이다. 즉, 원어민교사가 중·상 수준의 학생들을 맡아 각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한국인 교사는 중·하 수준의 학생들을 맡아 영어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중상위 그룹> 각 교실에서 원어민 교사와 풍부한 어휘와 표현 학습	<중하위 그룹> 영어실에서 한국인교사와 기초 문법과 어휘를 학습
	

각 단원의 4차시 중 2차시를 소규모 분리수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어민교사와 한국인교사와의 보다 긴밀한 수업 협의가 필요했다. 따라서 한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4차시에 대한 개별수업과 협력수업을 미리 계획(자료 3)하였고, 2차시에 걸친 2번의 분리수업을 통해서도 같은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어휘학습지(자료 4~15)를 직접 제작하여 동일한 수업자료로 활용하였다.

각 반 12~15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으로 지도하는 수업형태는 학생들에게도 영어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고 이해를 돕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1학기말에 실시한 학생대상 설문조사(수업만족도 조사-자료16)에서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소규모 수준별 수업을 찬성하였고, 수업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학생소감-자료17)을 제시하였다. 원어민교사의 분리수업 때 각 교실에서 수업을 지켜봤던 5,6학년 담임교사 수업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가 크다는 소감(담임교사들의 소감-자료18)을 전해왔다.

나. 12개 단원 어휘학습지 제작

소규모 수준별 수업의 목표는 원어민교사와 한국인교사의 강점을 살려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더욱 세심하게 지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분리수업과 협력수업을 번갈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같은 목표와 방향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한 작업으로 5,6학년 12개 단원의 어휘학습지(자료 4~15)를 제작하여, 분리수업 시에 동일하게 수업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 어휘학습지는 매 단원 두 쪽으로 제작하였다. 첫 쪽에는 교육과정 관련 어휘를 좀 더 풍부하게 실었고, 원어민교사와 협의하여 더욱 자연스러운 영어대화문을 만들어 넣었다. 두 번째 쪽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한 어휘와 표현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게끔 연습문제 형태의 'Quiz와 Practice' 코너를 만들어 넣었다.

<p>Lesson 7 My Father is a Pilot</p> <p>New Words</p> <p>New Sentences</p> <p>Who is he? (this/that/she)</p> <p>This is my father.</p> <p>Does your father work? He is a police officer.</p> <p>What does your father do? I want to be a teacher.</p> <p>What do you want to do?</p>	<p>PRACTICE</p> <p>Write the names of the family members.</p> <p>QUIZ</p> <p>work father Does your? Yes, a is he _____</p> <p>mother does what do you? _____ a is She.</p> <p>to be Do you want what? want I be to a _____</p>
--	--

6학년 7단원 어휘 학습지 제작샘플

이 작업은 가끔은 시간에 쫓겨 벅차다고 느껴졌지만, 원어민교사와 함께 수업 전 어휘학습지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단원에서 학생들에게 지도할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4차시의 수업을 총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 협력수업에서의 역할 분담

일주일에 1시간씩 소규모 수준별 분리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8년 1년 동안 협력수업을 통해 서로의 역할을 조정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어 왔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2, 4차시에 이루어졌던 협력수업의 기본적인 흐름은 앞서 언급했던 수업흐름도(자료1)을 따른다. 우선 한국인 교사가 수업의 문을 여는 도입(Introduction)부분을 맡아서 지난 시간의 복습활동을 한 후에, 원어민 교사는 발음을 연습하는 phonics부분을 진행한다. 3월 초에는 5,6학년 모두 정확한 발음을 연습할 수 있도록 ‘스타폴닷컴(www.starfall.com)’사이트를 이용하여 파닉스를 지도하였다.

전개(Development)단계에서는 교과서 CD-ROM이나 티나라 등의 애니메이션을 이용하기보다는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직접 들려주어 Look and listen 부분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런 모델대화문을 시연할 때는 두 교사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넣거나, 미리 연기한 모습을 촬영(동영상-자료 19, 20)하여 보여준다면 학생들이 더욱 집중하여 대화문을 듣게 된다.



5학년 7단원 수업동영상(자료4 캡처)

이어지는 Listen and repeat 과 let's play에서는 원어민교사가 있기 가능했던 창의적이고 새로운 활동들을 많이 넣으려 노력했다. 예를 들어, 5학년 14단원 Is Peter there? 단원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실제로 교실로 전화를 하여 한국인 교사와 영어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음 활동으로는 학생들이 전화영어대화를 외워서 원어민교사와 직접 통화를 해 보기도 하였다. 6학년 13단원 That's too bad 에서는 인터넷국제전화 사이트인 스카이프(www.skype.com)를 통해 미국에 있는 원어민교사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여 학생들이 학습한 영어표현을 다른 외국인들과도 써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Let's review와 closing 부분에서는 주로 한국인 교사가 리드하고 원어민교사는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학습지 활동을 살펴봐주었다. 이와 같

은 협력수업의 기본 흐름은 수업의 주제나 목표 언어기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역할을 정해놓음으로써 혼란 없이 매끄럽게 두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었다.

2) 응용편 - 수업 밖 더 재미있는 영어교육

협력수업과 소규모 분리수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정규수업 외 더욱 재미있는 영어교육활동을 기획해 볼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특색 있는 교육활동으로 크게 3가지를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가. 할로윈 파티를 통한 외국문화체험 행사

“저스틴선생님 고향인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저스틴선생님과 영어로 대화해보고 싶어요.” 원어민 교사가 자란 외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들은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할로윈 파티를 기획하게 되었다.

원어민 교사 또한 자신의 나라에서 매년 치러오던 할로윈 파티를 한국의 작은 학교에서 열어본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행사를 도와주었다. 우선 필자가 계획서(자료 21)를 작성하여 할로윈 파티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고, 원어민 교사가 할로윈 파티에서 사용하면 좋을 영어표현들을 선별하여 초대장(자료 22)을 제작해 주었다. 이 초대장은 파티 2주전에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배부하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예산은 영어선도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각 학년별로 지도교사를 선발하였고, 파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목표 영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담임교사에게 부탁하여 ‘Trick or treat, can you give me some candy?’ 등의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할로윈 분위기로 꾸민 영어실



Balloon a jack-o-lantern 만들기 활동

할로윈 파티가 단순히 짧은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원어민 교사가 어린 시절 할로윈 파티에서 재미있게 경험했던 6가지 활동(자료 21)을 정리하여, 본교 학생들이 직접 할로윈 뼈다귀인형이나 할로윈 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원어민교사가 맡은 Face painting 코너	할로윈 뼈다귀 만들기 활동
할로윈 파티 참고 사진	

파티는 이틀에 걸쳐 오후에 진행되었는데, 학생들의 참여도는 폭발적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분장을 하거나 파티복을 입고 등장하였으며, 예상인원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복도에서 한 시간 이상 파티입장을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장, 교감선생님께서 순회하며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기도 하셨다. 저학년 아이들은 아쉬운 마음에 애프터 파티를 따로 열기도 했던 만큼 할로윈 파티는 성공적이었다. 올해 역시 10월 28일 수요일로 파티날짜를 정하여, 작년보다 한층 보강된 12개의 활동으로 꾸며진 할로윈 파티를 계획 중이다.

나. 아침방송을 통한 영어식단소개와 영어퀴즈

원어민 교사와의 수업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원어민 교사가 학생들과 보다 가깝게 자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로 5,6학년을 지도하는 원어민 교사는 저학년들과 교류할 수 없는 기회가 별로 없었고, 마침 본교에서 영어방송을 시작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원어민교사가 출현하는 코너를 계획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나오는 수요일마다 원어민 교사가 영어로 식단(자료 23)을 소개해 주었고, 이는 원어민에게도 한국음식의 이름을 익히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식단소개 후에는 영어로 짧은 스무고개 퀴즈(자료 23)를 내어 학생들이 영어방송 후 본교 2층에 마련된 퀴즈함에 정답을 제출하여 상품을 탈 수 있는 재미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저학년을 포함한 본교 모든 아이들이 원어민 교사의 이름과 존재를 알게 되었고, 복도에서 원어민

교사를 마주칠 때마다 “Hi!, Hello!”라고 반갑게 인사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영어퀴즈의 정답을 알기 위해 수업 전 영어실에 도착하면 먼저 원어민교사에게 “What’s the answer?”라고 적극적으로



영어식단과 퀴즈를 내는 영어방송 장면

물어보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원어민 교사 역시 이런 방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작년보다 자신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전해왔다.

다. 영어동화 읽어주는 시간 - Storytelling adventure

본교 영어실에는 많은 영어동화책들이 구비되어 있지만, 정규 수업을 제외하고는 영어동화책을 읽는 학생들이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듣지 않는 저학년 아이들에게도 영어동화책과 원어민 교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위하여 ‘영어동화책 읽어주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 활동은 매주 수요일 1시에서 2시 사이에 원어민교사와 함께 도서실에서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동화책을 읽어주고, 간단한 학습지 활동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한 달에 3번, 한 학기에 10번의 활동으로 계획(자료 24)하여, 원어민교사와 한국인 교사 모두 부담 없이 수업 밖 영어교육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고 있다.



영어동화책 읽어주는 시간 장면

3.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기

원어민 교사와 함께 2008년 초부터 현재까지 많은 협력수업을 공개하였다. 장학사님과 본교 및 타교 교감선생님들이 참관하신 원어민협력 장학수업공개, 전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컨설팅 영어수업공개, 영어선도학교 대표 수업 공개 등 총 9번에 걸친 굵직한 공개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2가지는 2008 학교컨설팅 수업과 2009 서울특별시 영어선도학교 대표수

업이다.

우선 2008년 본교에 근무하는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협력 수업(수업지도안 및 학습자료-자료 25)은 원어민교사와 호흡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개하는 수업이니만큼 떨리고 힘든 수업이었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원어민 협력수업을 다시 되돌아보고 수업의 흐름을 재정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2009년 7월 1일에 공개했던 서울특별시 영어선도학교 대표 수업(수업지도안 및 학습자료-자료 26)은 서울시 전체 영어전담교사와 원어민교사들이 참관한 규모가 큰 수업이었다. 이때 그간의 노력으로 맞추어 왔던 원어민교사와의 협력수업을 선보였고, 참관교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교의 원어민 교사 역시 영어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어, 현재 온라인 TEFL(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과정을 수강중이다. 그리고 그간의 교육활동으로 자신감을 얻어 올해 남부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신규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교사로 지원하여 9월 3일부터 4일까지 3명의 신규원어민이 본교에 머물면서 수업참관 및 수업을 계획하는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마치며

본 사례글의 제목을 ‘Talk, Learn, and Grow Together’는 원어민교사와의 약 2년간의 교육활동을 짧게 표현한 말이다. 앞서 기술한 모든 교육활동들은 결코 한순간에 계획하거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충분한 대화가 필요했고, 서로의 오해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 속에서도 ‘영어를 더 잘 가르치는 교사’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였기 때문에, 원어민교사와 필자 모두 작년보다는 더 나은 교사가 되었다는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나의 노력과 교사로서의 열정을 함께 길러온 원어민 교사에게 감사한 마음이 떠오른다. 본 사례글은 정답이 아니며 그저 열정만으로 도전하고 실행했던 어설픈 교육활동의 나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작년 초 필자가 그랬던 것처럼, 길을 헤매는 많은 동료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원어민교사를 활용한 교육활동의 짧은 매뉴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